

50년대 모더니즘 소설 연구

배 경 열*

1. 전후의 일상성과 주체적 의지의 실현

산업혁명 후 인간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기능의 한 단위에 불과하고 집단 속의 한 사람으로는 '누구라도 팬찮은 어떤 자'에 불과하다. 인간은 각자의 개성이 무시되고 대중화·비인간화되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스스로 창출하려 하였고, 세계를 보는 새로운 인식구조를 탐색하였다. 산업사회 문명과 그것을 뒷받침한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에서 실존주의는 모더니즘과 동일하다. 실존주의가 사상 또는 철학에서 일어난 운동이라면 모더니즘은 문화예술면에서 일어난 운동이다. 그들은 다같이 기계문명 속에서 상실된 인간의 자유를 되찾고자 하였다. 또한 그들은 산업사회의 물질주의적 가치관과는 다른 인간 소외가 없는 가치관을 추구하고, 창조성이 배제된 합리주의적 인식구조를 초월한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였다. 이들의 핵심 논제는 인간의 진정한 자아의 발견과 실현이었는데, 이러한 인간 내부 자아의 추구는 인간 외부에서의 위치와 역할로서 자아의 개념을 규명한 기존의 인간관에 대한 반동이었다. 사회공동체나 우주 전체에서의 일부 기능으로서 객체적 인간을 무의미한 것으로 규정하고 내부자이를 표증하고 실현하고 창조하고 주체적 인간을 주창하는 것이 실존주의의 특징이다.

모더니즘은 이와 같은 세계관을 표현해 주는 대표적인 양식이며 객관적

* 박사과정 수료

인 리얼리즘을 부정하고 주체의 의식을 중시하여 자의식을 깊이 탐구하며 형이상학과 상징 및 실존탐구를 통해서 문학을 관념화시킨다.

모더니즘 소설의 내면성은 그와 같이 유폐된 자아가 주객동일성의 지향을 철회하고 다다른 또 하나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모더니즘이 작품의 자율성을 통해 사회적 기능을 지닌다고 말한다. 모더니즘의 자율성이 비유기체적 구성을 통해 사회와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기능'을 한다고 논 의한다. 사회에 대한 의사소통적 저항은 내용(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기능을 지니는 리얼리즘과 달리, 모더니즘이 자율성을 통해 사회에 저항하는 방식이다.¹⁾

자율성은 예술이 사회에서 부분 체계로서 기능하는 방식 곧 제반 사회적 이용에의 요구들에 맞서는 상대적인 독립성을 일컫는 예술 고유의 특질이 되었다. '예술 대 실제생활'이라는 근대 예술의 전형적인 구도는 자율성 범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더니즘은 작품의 내용을 통해 사회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것을 모더니즘적 '표현'이나 '구성'을 통해 특수하게 변형시킴으로써 사회에 대립하는 구조물이 된다. 따라서 모더니즘의 경우 그런 형식적 구조(구성) 자체가 사회에 대립하는 진리내용으로서의 '인식'이 된다.²⁾ 리얼리즘에서는 작품내용의 지시적 의미가 인식(현실인식)을 형성하는 반면 모더니즘에서는

1) 예술의 자율성이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것의 충격을 창출하는 예술적 행위의 고 유성을 뜻한다. 문학의 자율성 역시 상상력의 무절제한 이탈이 아니며 또한 사회로 부터 동떨어진 무비판적이고도 체제 옹호적인 예술 행위의 조장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예술이 자신의 독특한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현상은 목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예술을 사회적·경제적 현상으로부터 구제하며, 유포피 아적 세계의 현현을 암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뷔르거는 보러의 말을 인용하여 "총 체적인 합리성에 대항하여 아름다움을 구원하였고, 아름다움의 반체제적인 기능을 인정하였던 아도르노의 시도 이후 예술지상주의를 데카당스라고 받아들이는 고경관 념들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고 말한다. P. Bürger, 최성만 역, 『전위예술의 새로 운 이해』, 심설당, 1986, 제2장 참조.

한편 아도르노는 자율적 존재이면서 사회적 산물인 예술의 이중성에 근거하여 내 재적인 사회비판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의 안티테제이며 '무기능의 기능'을 통해 사회의 기능 연관을 부정하는 "사회에 대해 눈에 가시가 되는 비동일자이다." T. W. Adorno, 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84 참조.

2) T. W. Adorno, 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84, 350면.

상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삶의 제시가 이루어진다.³⁾

제임슨 역시 모더니즘을 현실을 외면한 ‘퇴폐적’ 예술이라는 이들의 공격에 맞서 “사회적인 내용을 회피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중략...) 틀에 끼우거나 위치를 바꾸는 특정 기법을 동원하여 사회적 내용을 눈에 안 보이게끔 형식 자체 속에 격리시킴으로써 그러한 사회적 내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⁴⁾이라고 주장한다.” “모더니즘은 역사적이고 정치·사회적인 충동들을 관리하려는 의도로서 다시 말해 그것들을 중화시키고 그에 대한 대리 만족을 제공하려는 등등의 의도로 이해하는 것이 좀더 적절하다. 그런데 덧붙여야 할 것은 그러한 충동들을 먼저 불러일으키지 않고서는 관리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이 모더니즘 사업의 미묘한 대목인 바, 모더니즘은 자신이 일깨운 리얼리즘을 다음 순간 다시 억제하기 위해 스스로가 리얼리즘을 타락시켜야 하는 지점이 그것이다.”⁵⁾

모더니즘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모더니스트들에게는 무한한 <초월적 실재>는 인간의 영역 밖의 것이지만, 실재하는 세계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세계보다 커다란 어떤 <심미적 실재>를 포함하고 있었다. 경험영역에 한정된 언어로 경험 밖의 정신세계를 구현할 수 밖에 없는 곤경 속에서, 그들은 비슷한 곤경을 풀어나갔던 과거의 재발견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경험론에 의해 소박한 낭만주의의 유산을 기웃거렸다. 그들은 이미 조건 지워진, 이미 “결정된”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양을 수동적으로 구성해 내는 예술이 아니라, 결정된 조건 속에서 그것을 통해 존재의 조건을 변모시키는, 적어도 변모시킬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진 낭만주의적 예술을 원했다. 낭만주의 예술의 원동력이었던 창조적 상상력이 복위되었고, 그에 따라 ‘자연’과 ‘역사’가 재해석되었으며, ‘신화’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변증법을 수용할 경우 실존주의는 얼마든지 자신의 주관적 영역을 벗어나 객관현실을 논의하는 철학과 만날

3) 강숙아, 「모더니즘 문학의 이해」, 『현대사회와 문학적 상상력』, 거름, 1997, 60면.

4) F. Jameson, “Reflections in Conclusion”, *Aesthetics and Politics*, Cornell University Press, 1977, p.202.

5) F. Jameson, *The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1, p.266.

수 있다. 쉘트르가 「방법을 찾아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마르크스는 역사의 객관성을 외부로부터 이해하는 방법이며 실존주의는 주관적 경험을 내부로부터 탐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존철학은 헤겔적, 관념론적 사관의 전체와 수행과 결과를 역사적으로 자기 것 속에 고유화하고 인간을 실존하는 주체로서 새로이 '역사적'으로 기초하려는 하나의 탁월한 의미에 있어서의 역사철학이라고까지 생각한다. 결국 실존철학은 자기를 주체로 한 역사의 구성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상실의 재난에서 비롯된 위기의 세계관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서구의 전후사조가 바로 실존주의 문학이다. 실존주의 문학은 서구 전후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양식이며, 객관적 리얼리즘을 부정하고 주체의 의식을 중시하는 문학으로 자의식을 깊이 탐구하여 형이상학과 상징과 실존탐구를 통해서 문학을 '관념화' 시킨다. 50년대의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작가적인 반응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실존주의 문학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불안사조는 우리의 경우 모더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50년대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계열의 작가로는 장용학과 손창섭을 들 수 있다. 같은 세계관적 기반에서 있으면서도 이 두 사람의 작품은 여러 가지 각기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2. 인간 고뇌의 존재론적 해명

리얼리즘적 기법을 주류를 이룬 우리 소설계에서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세계를 대담하게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장용학은 주목할 만하다. 장용학이 이와 같이 모더니즘적 지향으로 나아가는 특징에는 50년대 상황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1950년대 한국의 상황이 불안과 부조리 인식, 삶의 무의미성에 대한 자각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세계대전 이후의 서구사회와 유사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장용학은 의식과 사물의 외면적, 객관적 관계를 해명하는 실증주의적 인식론에 반기를 들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식주체가 실존적으로 개별적·구체적 사물과 대면하는 현상학적, 존재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장용학의 소설에서는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회의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실존적 혹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이며,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는 치열한 작가정신이 내재돼 있다.

장용학은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개인적 생활의 좁은 테두리의 인상뿐만 아니라 시대의 커다란 문제들을 이해하고 사회적으로 열등한 인간 집단을 문제의식적 실존적 재현의 세계로 끌어올리려 하였다. 그래서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징은 기존의 가치체계를 거부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의 양상을 투시하려는 데 있다. 동시에 삶의 본질적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그들의 진지성은 거창한 제도와 문명의 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새시대의 모랄을 탐구하기 위해 앞장선다. 장용학은 찢어진 의식을 소유한 채 정신파멸의 비극을 통해서 인간 존재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질문과 회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뒤틀리고 억압된 병적 사고를 하는 인물들로 하여금 그 이면에 감추어진 낡은 인습과 부조리한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본래적 인간을 옹호, 구출하려는 강한 신념을 표현하려 한 것이다. 장용학은 이런 점에서 50년대 문학의 한 모서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1) 실존적 고뇌의 서사화

장용학의 「요한시집」(『현대문학』, 1955.7)은 자신의 판자촌 생활의 경험과 거제도 포로수용소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써낸 것이다. 지식인의 고민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이 작품은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문제인 이데올로기와 인간 실존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우화를 통해서 장용학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를 암시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런 기법은 읽는 이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만의 독특한 방법의 시도이다. 장용학은 스스로 창작한 우화로서 방법상의 기발함과 주제의 독특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이것을 실존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다.

철학적 현대화의 결과물인 현대화의 폐해를 고민하고 '진정한 자유'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모색한다. 그리하여 그는 누헤를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한 구도자적 인간으로 설정한다.

진정 벽을 무너뜨리다가 더 큰 벽에 부딪쳤다. 그것은 진정한 <나>를 찾으려다가 진정한 <나>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누헤는 실존적 자아로서 부조리를 깨달은 뒤 새로운 생성을 위하여 죽음의 길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한시집』에서 드러나는 모방은 플라톤이 주장한 모방⁶⁾이 아니라 실존의식의 개안으로 환치할 수 있다. 실존적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현대에서는 실존주의의 싹을 트게 한 것이다.

누헤의 죽음은 실존적 자각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실패와 불행 이상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생명력은 참된 자유는 복종이라고 믿는 의용군이었던 젊은이 동호에게 불어넣어져 부자유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깨우쳐 가면서 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기에 누헤의 죽음은 인간존재의 종말이라는 단순한 차원의 비극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의 획득으로, 변화를 뜻하는 연속성의 원리이며 잘못된 실존태를 죽이고 죽음에서 인간을 구해내는 전환의 논리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은 던져져 있는 존재다. 그러나 인간은 그저 던져져 있지만 하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 또 앞을 향하여 던지기도 하는 존재다. 내던지다(기투=Entwerfen)는 것은 미래를 향하여 기획하고 계획한다는 뜻이다. 이 때의 인간은 던져졌다는 과거적 필연에 그저 밀리지만 하거나 아무 하는 일 없이 막연히 미래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나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 나간다. 던져져 있으면서 앞으로 내던지

6) 시간적·역사적 질서 바깥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와 시간적·역사적 질서 안에 있는 현실 세계를 이원적으로 대립시키고, 그 중에서 현실세계를 전적으로 부정한 채 이데아의 세계만을 지향하는 정신적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플라톤의 모방은 체제비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잇점을 갖는 반면, 현실 세계의 모든 가치를 전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소설적 구체성을 상실하는 동시에 역사적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결함을 지닌다. A. Kojève, 설현영 역, 『역사와 현실의 변증법』, 한빛, 1981, 119~133면 참조.

는(피투적 투기=geworfener Entwurf) 존재는 죽음에 대해서도 앉아서 기다리거나 불안에 허덕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앞질러(선구=Vorlaufen) 죽음을 떠맡을 것을 결의함으로써 '죽음에서의 자유'가 된다.⁷⁾ 누헤는 인간을 어떤 짐승보다 못한 것으로 모독하는 현실에서 탈출하는 길로 자살을 택한 것이다. 그의 자살은 그가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새로운 탄생, 구원에 이르는 절대자유를 얻는 길이었다. 곧 인간 토끼 누헤의 죽음은 있는 그대로의 본질에서 실존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실존주의가 '극단적인 절망의 철학인 동시에 그것은 뛰어넘으려는 숨가쁜 노력의 철학'⁸⁾이라면 이원론의 세계에 대한 부정인 동시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돌파구라는 의미의 죽음은 실존적 죽음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누헤를 통해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동호는 인간은 끊임없는 인식과 더불어 자신의 실존을 만들어 가는 실존적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누헤가 뿌린 자유의 버섯은 하나의 밑알이 되어, 동호의 누헤의 자살 이후 절대자유를 추구하는 비단옷을 걸쳐 입은 진자인 '자유의 나방'으로 태어난다. 누헤가 죽은 자리에 '자유의 나방'인 동호가 탄생한 것이다. 즉, 누헤의 죽음에서 동호의 실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요한 시집」은 “근대문명에 대한 형이상학적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여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도정을 이룰 세 주인공의 얘기를 통해 비유적 논리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소설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이미지는 바로 '눈 안'으로 표상되어 있는데 그 눈은 바로 부조리한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자아에 대한 '책임 추궁의 눈'이라 할 수 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바라보는 그 눈은 깨어나지 못하는 동시대의 인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장용학의 또 다른 문제작인 「현대의 야」 역시 인간의 세계에 대한 의지와 판단, 그리고 존재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요한시집」을 형성하는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작품이다.

「현대의 야」(『사상계』, 1960.3)는 6·25를 기점으로 한 이데올로기의 싸

7) 한진숙, 「실존주의」, 『현대의 철학 I』, 한진숙·차인석 공저, 서울대출판부, 1982, 21면.

8) J. Novack, 앞의 책, p.333.

움을 실존주의 방식으로 파악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장용학은 이 민족적 비극을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개인의 파괴라는 실존철학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역사 속에서 뒤엎겨 소용돌이치는 속에 개인의 사고와 감정은 옥죄이고 파괴당한다. 따라서 현우가 겪은 체험은 환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6·25를 통해서 실제로 당한 일이라는 것이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6·25 전쟁을 무서운 권력으로 등장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역사를 그 메카니즘의 틀 속에 죄어 가면서 모든 개인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작가의 이러한 실존의식은 무엇보다도 현대의 팽배하는 위기적 풍토와 병적인 증세를 날카롭게 도려낸다. 시대의 상황의식을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게 진단하여 분석한다. 이것은 기술지배시대에의 반동, 과학주의에의 반동 정신의 위기에 대한 자각 등으로 집약된다. 그런 의식 하에서 현우라는 실존적 인물을 창조하여, 실존적 자각을 통해 현실의 부조리함을 깨닫고, 폭로하고 비판하면서 실존적 존재로서의 길을 걷다 죽음의 결말을 맞이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결국 ‘현우는 6·25 전쟁의 현대사 속에서 버려진 존재로서 ‘지금까지의 일들은 사진 속의 현우가 한 것이다’라고 한 것은 현실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은폐시키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6·25 이후의 사회상으로 현대의 시간에 쫓기는 인간의 형상과 6·25의 후유증으로 간첩죄로 인한 재판과 구속은 현대사의 그늘 속에서 인간이 과연 존재물인가에 대한 회의를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가 우리 한국 문학에 싹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현대사회의 권력자로 등장하여 모든 개인을 자체의 메카니즘으로 조직함으로써 개인적 존엄성을 위협하고 있다. 작가는 개인의 실존의식을 통해서 현대의 상황과 정신적 위기를 바라보고 있다.

현우는 자아와 세계의 즉자적 조화 속에서 살려 하지만 공산주의에 의해 거부되고, 세계의 지배권을 인정해 주는 대신에 자기만의 삶을 살려한 박만동은 자본주의에 의해 거부된다. 이는 헤겔이 지적한 주체의 소외를 의미한다. 주체의 자의적인 활동의 결과로 생산된 것이 후에 객관화되어 주체에 대립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체를 부정하게 된다. 즉 가치의 전도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현우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허구와 기만에서 지적인 인간이기

를 거부한다. 그런데 그는 의식의 무화(無化) 상태에서 현상학적 환원을 경험한다. 그 속에서 순수 이성의 상태에서 객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현상학적 환원에서 객관적으로 생을 관조한 의식은 이성을 통하여 외계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현우는 여태까지 <나 아닌 나>의 세계, 즉 본래적인 자아가 아닌 일상적인 자아의 세계에서만 살아왔던 것이다.

그래서 현우는 전문가들의 세계 속에서 인간이고자 하는 자유마저 간직하지 못한 채 결국 감옥의 쇠창살에 손가락이 끼여 죽고 만다. 이것은 김상선의 주장처럼 “실존적 인물인 현우가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자유”⁹⁾인지도 모른다. 그의 죽음은 인간존재의 종말이라는 단순한 차원의 비극이 아니고, 오히려 자유의 획득으로 변화를 뜻하는 연속성의 원리이며, 잘못된 실존태를 죽이고 죽음에서 인간을 구해내는 전환의 논리이다.

실존주의자들이 ‘부조리와 관련 있는 작가나 철학자들은 자살을 거부하고, 죽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예외가 없다’고 하듯이, 죽음의 설정은 인간의 본질적 영역에 대한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이며, 특히 전후의 실존적 상황에서 죽음에 간헐 존재로서의 체험을 한 모두 작가들의 공통된 의미부여 현상이다. 따라서 현우의 죽음은 역사 혹은 현대사회의 모순과 인간의 죽음과의 관계를 잘 규정지어 주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2) 실존상실과 존재탐색

현대세계가 전개되면서 모든 존재의 원천이고 근원인 보편적인 것이 단지 특수한 사실들에 붙여진 이름에 불과한 것이 되고, 보편적인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들이 절대적 힘을 가지고 인간을 지배한다. 그리고 종내에는 인간의 존재 자체마저 위협한다. 이것은 현대의 메카니즘이 인간의 실존을 말살하고 있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며, 나아가 모든 본질이 실존을 지배하는데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니체는 “모든 인식은 그 인식의 주체가 되는 인식자가 갖고

9) 김상선, 앞의 책, 23면.

있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와 같은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보편적 타당성이란 있을 수 없다.”¹⁰⁾ 다시 말하면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기 위하여 여러 관점들을 고려해야 하고 이 관점들을 같은 비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상대적 진실의 과장은 혼돈과 무질서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문화적 규범의 파괴 현장으로서의 잔혹성의 세계에서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만한 어떤 가치도 남아 있지 않다. 이 속에서 본래의 인간은 망실되고 가짜 인간만이 판을 친다. 이러한 현상을 보다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것으로부터의 탈출을 기도하고 있는 작품이 「비인탄생」과 「역성서설」이다. 작가는 이 두 작품을 통해 ‘제도나 관념이나 가치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인간은 인간다울 수 있다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다.

「비인탄생」에서 작가가 이 비합리적인 희생제의(어머니를 화형에 처함)를 단지 주술적인 미메시스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런 제의적 표현을 통해 합리성(=이성)을 뛰어넘으려는 화해의 열망을 드러낸 것이다. 그같은 인식은 분명히 합리성(=이성)에 따른 판단이다. 모더니즘에서 합리성(=이성)을 넘어서려는 화해의 열망이 합리성의 계기를 전제로 나타나는 것은 이런 뜻에서다. 이처럼 모더니즘이 부정적 인식에 도달하게 되는 데에는 합리성의 계기가 반드시 전제로 된다. 부정적 인식이란 합리적으로 관리되는 사회의 비합리성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다름이 아니다.

현대인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거부이다. 현대인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며, 구원되어야 할 존재이며, 현대인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구원받아야 할 사실에 속한다는 고발이다. 현대인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주장은 바로 이 현대라는 상황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바로 현대인으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현대라는 상황은 초역사적 현실로서 어느 때나 있어 온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인류진보의 미명 아래 인간의 힘과 의지를 원인으로 하여 만들어 온 특정의 현대, 산업사회라는 역사적 현실이다. 이것은 바로 서구 산업사회의 진보 속에서 나타난 문제상황이며, 실존주의의 탄생배경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의식 규정(탐구)은 하이데거의 말대로 의식에 모

10) 정동호, 『니이체 연구』, 탐구당, 1983, 38면.

든 주권을 인정하려는 근대 이성주의의 시원인 데카르트적 사유 방법에 대한 부정을 목적으로 한다.¹¹⁾

기존의 가치관과 사상의 틀에서 벗어난 인간, 비인으로서의 탄생만이 이 부조리한 병든 사회에서 실존적 자각을 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이다. 장용학이 <비인>을 선택한 것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그가 또한 바라는 절대자유의 세계에 쉽게 도달할 수 있으리란 확신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인>은 종래의 인간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 너무도 많은 병폐를 가지고 있는 이 병든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모두 병들어 썩은 고름 부대일 뿐이다. 따라서 장용학은 이런 일상성 속에서 병든 채 살고 있는 자아를 현대문명사회의 대표적인 법(=제도)의 횡포를 통해 본래의 자아를 깨닫게 하고 있다. 이런 실존적 자각을 통해 <인간성>에서 <인간>을 구원해내고, 일상적 자아가 아닌 본래적인 자아를 되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역성서설』은 『비인탄생』의 제2부로서 지호가 이 유희를 찾아내는 것은 <지동시대>에서 벗어나 <천동시대>를 획득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현대의 과학과 기계 그리고 합리주의는 인간을 ‘주체’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에겐 ‘이성의 탄생’과 ‘인과’의 범람이 자기를 잃어버리게 하며, ‘자아의 부재가 생’이었고, ‘생의 부재가 곧 자아’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비인탄생』과 『역성서설』은 모든 인간을 구속하는 현대문명,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거기에서 잉태되는 비인간화 속에서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자문해 보고 인간 본질을 탐구하는 작가의 사상을 문학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타락한 세계와 시원회귀

『원형의 전설』은 실존적인 서구 모더니즘의 사상을 철저히 내면화한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서 기계문명의 거부, 합리주의의 거부, 전통모랄의 거부 등과 같은 반근대주의적이고 반분명적인 논리를 강조하는 경향

11) 김상환, 앞의 글, 205면.

을 띤다. 사생아는 시대의 혼란상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장용학은 모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정립된 가치관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을 사생아로 표현하고 있다. 이 사생아들은 전쟁 후의 시대 상황에 적응하려 노력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는다. 이러한 갈등의 모습은 근친상간으로까지 확대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장의 사생아로서의 존재가 반도덕적인 욕망과 폭력의 피조물인듯이, 전쟁은 근친상간적인 겁탈의 대응물이다. 한국은 결국 두 이데올로기의 사생아라는 발상을 근거로 형성되어 있는 이 작품은 전쟁과 겁탈을 등가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데올로기와 전쟁의 상흔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를 통하여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요한시집」 「현대의 야」 「비인탄생」 「역성서설」에서 다루어진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허구성, 전후 사회와 정치적 허무주의, 현대메카니즘과 원초적 세계의 동경과 같은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상호 변증법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더구나 전자의 작품들은 단편소설이라는 양적인 제약과 형식적인 굴레에 묶여서 그의 관념세계인 형이상학적인 문제를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힘들었으나, 「원형의 전설」에서는 장편이라는 개방적 형식에 의해 그의 작가적 관심 영역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이 소설은 근대성 비판과 부정적인 근대의 극복을 위한 지고한 노력으로 압축할 수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전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작가가 비판하는 근대성이라는 현실 논리는 자아와 이성 에 기초한 합리화의 메카니즘에 지배되는 현대의 논리이다. 현실 논리는 '인간'을 묶고 있는 일체의 사회 제도와 정치 체제, 문화, 윤리, 도덕까지 그 안에 포함하고 있으며, 작품 속에서는 진정한 '인간'과 대척되는 '인간성'을 만들어 내는 외적인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근친상간의 문학작품의 주제로 설정할 때 이는 폭력과 사회적 부조화, 소외된 감정, 과학문명 등에 의해 일그러진 인간조건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용학이 이 작품에서 의도했던 바 역시 그런 것들에 부합된다.

근친상간은 인류문명의 발전과 함께 대표적인 인간의 금기이다. “근친상간의 금기는 사회적 존재와 <문화>의 기초, 그리고 건축물의 토대로 간주된다.”¹²⁾ 그렇지만 그는 ‘근친상간’이 단순한 소재가 아니라, 기존의 도덕관

념 중에서 가장 두꺼운 벽인 근친상간을 통해 <현대적인 대결>을 시도한다고 밝히고 있다. 문명사회에서 근친상간은 도덕적 단죄의 대상이지만 문학적 상징에서 근친상간은 분리되었던 두 부분이 본래 한몸이었음을 의미한다. 폭력의 가해자인 오택부가 타락한 인간상을 대표한다면, 폭력의 피해자인 기미는 순수한 인간상을 대표한다. 이 둘이 본래 한 몸이었다는 사실은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뿌리가 같다는 말이 된다. 즉, 작가는 근친상간을 통해 인간 내부에 폭력적 속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¹³⁾ 우리는 여기서 작가의 세계관이 이원론(二元論)이 아닌 일원론(一元論)적 세계관임을 알 수 있다.

근친상간으로 대표되는 장용학의 금기 파괴는 전후 사회를 지배하던 낡은 제도에 대한 부정의식이다. 그것은 이장 스스로 동굴 속에 갇히게끔 열쇠를 밖으로 던져 버렸다는 행동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현실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죽음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것은 현실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자발적인 행위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까지 장용학의 소설을 ‘자아의 현상학’이란 관점에서 그가 실존적 삶과 정신적 지향을 어떻게 일치시키려 했고, 그 과정의 진실성을 탐색해 왔다. 자아의 진지한 내면성찰은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실존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신의 높이를 추구해 온 솔직하고도 고통스런 내면의 변화를 통해 원시시대(천동시대)를 꿈꾼다. 그것은 우리네 삶 속에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세계의 발견이었으며, 동참의 즐거움이었다. 따라서 그가 꿈꾸는 4차원의 세계 역시 물질적 풍요와 탐욕으로 길들여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장용학의 소설들은 거의 전부가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을 문제삼고 있다. 근대의 여러 특성들은 제거될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에 대한 비판이 탈근대성을 지향하고 있게 된다. 여기에 이장이 말하는 4차원이

12) M. Lefehvre, *La vie quotidienne dans le monde moderne*,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세계일보』, 1990, 204면.

13) 김상선은 『신세대 작가론』(일신사, 1964, 236면)에서 장편 『원형의 전설』에 나타난 근친상간의 의미를 새로운 사차원의 세계를 위하여 삼차원의 세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즉 근친상간은 새로운 세계를 암시하는 기호이다.

라는 유토피아적 관념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3. 인간존재 문제와 진정한 가치 모색

전후의 50년대를 허무와 불안의 시대, 절망의 시대로 표현할 때 그러한 시대적 이미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작가가 손창섭이다. 그는 인간존재에 대한 불확신과 끊임없는 불안의식을 보여주면서 현실의 부정적 일상을 세밀히 묘사하여 삶과 인간에 대한 환멸을 일깨우기도 한다. 이것은 인간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과 관계하고 죽음이나 공포, 절망 등의 한계상황을 부각시키는 실존주의 문학과 관련지을 수 있는 부분이다. 손창섭이 '폐쇄된 공간'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고립된 개체를 형상화하고 어두운 시대적 분위기를 작품의 배경으로 설정하여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인간존재의 위치를 탐색할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이와 같은 문학환경과 관련된다 하겠다. 그의 소설은 실존주의적 불안과 고독, 절망 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 자신은 실존주의에 뚜렷하게 영향받았다고 또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소설 경향과 당시대의 실존주의 유행으로 미루어 그의 소설을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는 전쟁 자체보다도 전후의 사회 상황을 그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인물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특히 손창섭 소설의 개별적인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전후 암담한 시대 상황과 사회 현실의 구조적 연관성과 부조리한 현실,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삶의 비인간화와 모순을 살펴볼 수 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한 경직된 반공 이데올로기와 부패한 정치, 파행적인 자본주의의 메카니즘 등으로 인하여 50년대의 현실 상황은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적인 상황이었다. 또한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속물주의적 가치는 현실에서 만연되었다. 불안과 혼란의 시대가 안겨 준 삶의 경험과 상황을 주체적 자각으로서 극복하려는 휴머니즘의 단계는 현실 상황 속에 스스로를 구속시키는 앙가주망의 시각이 팽배한 문단의 현실로 볼 때, 실존적 의지의 표출로 형상화 된다. 또한 사물화 현상으로 사회의 가치관이

일변하는 시기에 있어서 인간성에 대한 탐구는 사물에 대한 반윤리적 종속을 거부한다. 사물화 현상이 현대 사회의 필연적 조건이라는 관점¹⁴⁾에서 손창섭은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잉여인간』 등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생존과는 결부되고, 반명제인 사물화 현상과 윤리라는 문제를 대비하여 휴머니즘적인 현실에 위반되는 상황을 통해 비극적 장치를 구체화 하는 것이다.

부조리에 찬 사회에서 손창섭 소설은 고통의 환기와 부정의 환기 방법을 통해서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의 진정한 가치를 부각하려는 역설의 기능과 이상화된 인물의 부각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물들의 행위와 의식의 미치는 범위가 확대되고, 협착한 상황 속에 폐쇄된 고독한 존재에서 현실에 대한 대응의지를 보인다. 그리고 자기 존재와 삶의 문제, 인간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모해 간다. 이것은 ‘소설이 작가의 윤리가 작품의 미학적 문제가 되는 유일한 문학장르’¹⁵⁾이기 때문이다. 비록 사물화 현상이 집단적 의식의 약화를 초래하여, 사회의 총체적 구축을 회구하는 집단의 통일성 있는 세계관이 형성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가치는 소설가의 의식 속에서 ‘윤리적 성격’을 띤 채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손창섭의 작품이 사물화라는 문제 자체의 일부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손창섭은 현실의 모순을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작가의 눈’에 투영된 세계를 작품 속에 재구성하면서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에 기대고 있다.

(1) 부조리의 자아화

손창섭은 한국전후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그의 소설이 1950년대 한국사회의 참담한 현실과 피난생활 위에 작가의 독특한 개성을 바탕으로 전쟁 후 50년대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과 삶의 비인간화에 대한 문제를 독특하게 드러내어 현대적 자아를 탄생시킴과 동시에 60년

14) I. Hassan, 이가형 역, 『철저한 결백』, 세계사, 1996, 386면.

15) L. Goldmann, 앞의 책, p.29.

대 작가와 구별되는 현대성(모더니티)에 대한 자각에 있다고 본다.

손창섭 소설의 인물에서 주목할 것은 그가 창조한 인물들이 병신스러우면서도 '조금도 무리가 없는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는 것이다.'¹⁶⁾ 그들의 무의미한 행동과 정신병자적인 모습은 오히려 생동감을 갖고 현실을 되비쳐 준다. 그것은 작가의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의 결과이고 또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손창섭 소설의 인물들은 '선/악'의 대립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선이 타락한 사회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문체적 개인¹⁷⁾이라면 악은 현실의 비인간화 풍토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손창섭 소설은 그 근저에 윤리성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내면 밑바닥에도 정상적인 삶에 대한 회구가 없을 수 없었다. 정상적인 삶에 대한 그리움의 강도가 너무 커서 역으로 그러한 모멸을 퍼붓은 것이다.

「사연기」, 「비오는 날」, 「생활적」 등은 부조리한 자아를 그리고 있다. 부조리는 절망을 낳는다. 그리고 이 절망이 자아와 외부와의 충돌에서 생기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 말하자면 절망이란 실존을 탐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시발점이 된다. 그리하여윤리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한 추정은 초기작품에서는 미약하지만 작품의 결미에서 암시되고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결말은 주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이 '계시의 순간'(the moment of illumination)에 해당하기 때문이다.¹⁸⁾

손창섭 소설의 인물들은 거의가 '자기 분리, 자기 부정'의 계기를 겪고 있

16) 김우중, 앞의 글, 256면.

17) 루카치는 소설의 형식을 문체적 개인이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설의 진행은 그 자체 속에서 이질적이고 개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히 존재하고만 있는 현실 속에서 침울하게 감혀져 있는 상태로부터 명백한 자기 인식으로 문체적 개인이 나아가는 것이다. G. Lukács, 『소설의 이론』, 심철당, 1985, 103면. 이러한 문체적 개인의 개념은 골드만에게 차용되어 문체적 개인, 또는 예외적 개인이라는 말로 쓰여졌다. 여기서 문체적 개인이란 시장사회에서의 진실추구 인물이고 예외적 개인은 노동자 집단적 주체를 의미한다. 홍성호, 『문학사회학, 골드만과 그 이후』, 문학파지성사, 1995, 103면.

18) 정한숙, 『소설기술론』, 고대출판부, 1978, 127면.

으며 ‘자기 극복’을 위한 계기도 아울러 가지고자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기극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이고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손창섭은 부조리한 사회 속에서 인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존적 명제인 자유의 문제를 제기하여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면 생의 모든 것을 인간의 의지대로 할 수 있어야만 하지만 현실적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갈파하고, 결론적으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인간의 존재는 무(無)라는 결론을 유도한다. 인간의 삶과 세계와의 부조리를 이러한 방법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손창섭이 그의 작품에서 병적인 인물을 그리는 것은 이러한 시대 현실에 기인한 것이다. 개인의 실존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 성찰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의 비극성에서 연유한 것이다. 따라서 손창섭은 작품 속에 기성의 부조리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작품 인물을 통해 그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 반항하게 함으로써 부조리한 상황으로 인한 단절된 절망의 자각과 함께 자기 실현 내지 구원을 암시하고 찾는 것이다.

(2) 실존확인 and 존재전환

존재전환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소모적이고 허무한 삶을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혈서」는 현존재적 불안이 자각존재적인 불안으로 이행되어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후 유럽의 실존철학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주체적 존재로 파악된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존재를 만들어 가는 것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다’¹⁹⁾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자기 실존의 주인으로서, 자기 삶의 절대자가 된다. 이러한 논리는 ‘신이 없다면 인간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절대명제에 입각해 있다. 즉 신에 의해 규정된 인간 본성이란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미래상을 만들어 나가는 절대적으로 자

19) J. P. Sartre, 앞의 책.

유로운 존재라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말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자유, 즉 자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거나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자유로운 의지의 자율적인 선택 행위'²⁰⁾를 뜻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해결의 장」에서 현실과의 접촉을 끊고 내면으로 칩거하는 지상의 모습에서 손창섭의 모더니즘적 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있는 지상에게 있어서 광순은 인간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녀의 삶이 가지는 타락성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내면세계가 순수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순은 여대생이었으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몸을 팔게 되면서 강인한 삶의 의지와 생활력으로 현실에 적응하게 된 인물이다. 지상은 그녀에게서 자신이 갖지 못한 면을 발견하게 될 때 존경과 부러움을 갖는다. 그는 실천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생의 해결'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

어머니가 자리에 누운 뒤 아버지가 자신의 뺨을 갈기며, '죽어라, 썩 죽어!'하고 외치자, 지상은 아버지의 손이 고무장갑 같다고 느끼며 밖으로 나온다. 그러나 결코 나는 대장의 소원대로 죽으러 나가는 것은 아니다.²¹⁾(강조는 인용자)

지상이 집을 나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버지를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광순을 찾아가는데, 광순의 존재에서 지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기대를 보이기도 한다. 그것은 광순의 미소로 표현되고 광순에 대한 사랑이 자신의 해결책일지도 모른다는 자각을 나타낸다.

광순의 낮에는 언제든 눈부신 미소가 사라진 적이 없다. 근심도, 애수도, 그 미소의 바닥으로만 흘러가 버릴 뿐, 결코 그것을 지워버리거나 흐려버리지는 못하는 것이다.²²⁾(강조는 인용자)

20) G. Novack, 앞의 책, p.24.

21) 위의 글, p.128.

22) 위의 글, p.130.

나에게 있어서 광순은 삶에 대한 회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전혀 드리워 있지 않은 구원의 여성으로 지각된다. 광순에게는 '티없이 맑은 웃음이 잠 시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 미소의 본질은 사물화 질서에 의해 분열되지 않은 상상계의 현현, 즉 실재계의 환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상계적 욕망이 '나'로 하여금 현실의 세속적 가치를 냉철하게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더구나 그녀의 '눈부신 미소'의 이미지는 웃음이라곤 전혀 짓는 적이 없는 지상의 '무표정한 얼굴'과 대조되어 삶의 현실적 고통과 무의미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움'의 표상으로 의미화된다. 따라서 '지상'이 '광순'의 이불 속에서 편안한 잠을 자고, 그녀의 오피스를 찾아가 돈(삼백환)을 받는 행위는 그녀의 '눈부신 미소' 속에 담긴 비밀에의 탐색이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자신은 모순과 부조리 속에 있으면서도 다른 이들의 모순과 부조리를 지적하는 역설적 인물이며 깨어난 인물이다. 지상은 앞서의 달수보다도 비판적이고 사회 가치의 모순 병리 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인물이다. 그는 전후 시대 상황에 의한 허황한 꿈의 실상을 보여주었고 그 꿈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함을 깨닫는다. 지상은 무자각의 인물에서 자각의 인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새로운 중간 단계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실몽」(『사상계』, 1956.3)은 전쟁한 후 월남한 남매의 정착되지 않은 삶의 양상을 통해 현실문제의 해결과정을 보이기 시작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철수는 끊임없이 '하늘웃'이 의미하듯 현실적 대응을 위한 취직과 자립을 갈망하고 있다. 춘자는 가난한 처지와 노처녀의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교사가 되고자 수험준비를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인 '나'와 결혼하려고 한다. 그래서 춘자는 수험준비에 열중한다. 그녀는 술집작부라는 직업에 '수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고 '고민이나 오너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기질'의 누이를 경멸한다. 누이와 춘자는 실질적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각각 책임지고 있지만, 살아가는 방법이나 지향하는 세계는 판이하게 다르다. '남녀 관계와 돈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는 누이에 비해 춘자는 '가치있는 생활을 해야 진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누이가 전남편을 떠나 딸 재순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떠나버림으로써, 그

동안 누이에게 의존하며 살아온 철수와 상근은 각자의 길을 찾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 제대군인인 철수는 누이 부부의 속물적인 삶을 거부하는 데서 출발하여 자신의 삶을 선택한다. 철수는 현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다. 결국 철수는 매춘을 하는 누이에게서 벗어나 독립하기로 결심한다.

이제는 어디로든 나도 떠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집에 내가 월여를 머물러 있는 것도 누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누이를 찾아갈 생각은 아예 없었다. 차라리 나는 누이와는 반대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합실을 나섰다.(강조는 인용자) 밖에는 어둠을 뚫고, 자동차가 수없이 질주하고 있었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어두운 쪽을 골라서 걸었다. 십여 살짜리 조무래기 한 놈이 앞을 막아섰다.

“아저씨, 하숙 안 가세요?”

“오냐 가자! 가구말구. 어디라두 가자!”

나는 소년을 따라 걸었다.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다. 불현듯 창백한 춘자의 얼굴이 눈앞을 얼쩡거렸다. 뒤이어 여자의 가느단 울음소리가 들려 오는 것 같았다. 그것은 분명히 숨죽여 우는 젊은 여자의 울음 소리였다. 이러한 착각을 끝까지 견디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꾸만 어둠 속을 헤치고 소년을 따라 걸었다.²³⁾

철수가 '어디로든 가자'며 어둠을 헤치나가는 모습은, 돈과 육체와 허위에 반역하는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갈등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누이와는 반대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다짐은 상황에 매몰된 채 절망만을 곱씹으며 무위도식하던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3) 진정한 가치의 모색과 극복

중편소설 「잉여인간」(『사상계』, 1958.9)은 손창섭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유형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돈과 섹스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는 봉우 처, 비분강개로 특징지어지는 익준, 그리고 실의의 인간 천봉우는 모두 손창섭 소설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인물 유형이다.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서만기는 이상인이 아니라 본래성을 발견하고

23) 위의 글, p.199.

있는 실존적 인물에 해당될 수 있다. 그는 평균화, 익명화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인간애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단독자로서의 특수성을 잃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그는 소설 속의 다른 인물들과 구별되는 실존의 면모를 지닌 것이다. 그는 ‘자의식과 행동, 개인과 사회, 가정과 정치를 중재²⁴⁾하는 이상적 태도로서 자신을 실현해 가는 인물이다.

여기에서 손창섭이 결여와 목석(木石)에 의한 부정의 미학을 극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전쟁으로 인해 인명이 경시되고 생의 찰나적 의식이 형성되면서 불안과 위기의식이 보편화되고, 또한 이승만 정권의 정치, 경제적 파행으로 혼란이 극에 달하면서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설명, 혹은 극복의 정신적 방법으로 새로운 인물과 사상이 요구된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서구 전후사상의 수용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즉 전후세대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그 사상을 자신의 언어로 삼아 기존의 언어에 도전하며, 또한 자신들을 ‘신세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풍토에서 새로운 세대에 의한 지식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 새로운 지식이란 서구 전후문예사조로서의 실존주의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로 불란서 실존주의문학을 수용하는데, 그것도 철학이나 깊이 있는 문헌론보다는 주로 문학작품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철학의 통로보다도 주로 문학작품을 통해 받아들여진 이 시기의 실존주의는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 속에서 각기 이질적인 두 가지 성격을 나타내게 된다. 그 하나는 실존주의 철학이 내포하고 있는 세계관적 기반에 근거한 것으로 실존하는 존재의 주관적 인식을 더 우위에 두려는 제반 사유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실존주의의 이러한 모더니즘적 성격은 50년대 소설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장용학과 손창섭의 소설에서 이런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24) 서준섭, 「정지된 세계의 소설-손창섭론」, 『한국전후문학의 형성과 전개』, 태학사, 1993, 186면.

게 된다.

이 시기 소설 작품들에 나타난 현실의식은 전체적으로 '전후의 현실비판과 극복의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장용학 소설의 주인공들은 무의미한 삶을 피동적으로 소모해가는 자폐적 인간상들이거나 세계의 횡포에 의해 상처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반발로 인간을 모멸하고 피해의식을 부각하는 인간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실을 타개하려는 의식이 미약하지만 서서히 싹트고 있다. 전후의 불안의식의 극복과 그 한계를 통해서 드러난 그들의 작품은 문학 내적인 갈등을 드러낸다. 그것이 한국문학의 현대화의 문제이다. 그들은 기존의 문학과 자신들의 문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더니즘의 문제로 나아간다. 민족주의 문학이나 자연주의 문학에 대해서 그들은 상황극복의 불가능함을 주장하고 모더니즘을 행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그들은 서구 전후 문예사조를 현대문학으로 간주하고 서구의 전후와 한국의 전후 사이의 동일시에서 한국문학의 현대성을 논의한다. 그것은 문학적 방법으로서 모더니즘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스로를 모멸하고 비판함으로써 전쟁의 충격을 성찰하기 위한 작가들의 현실의식의 한 반영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장용학과 손창섭은 폐허적 전후상황의 반영에만 그치지 않고 인간존재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절망과 고통에만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인간의 고귀함을 일깨워주는 치열한 의식을 보여주었다.

장용학은 인간의 현재적 상황을 고발하고 나아가선 본래적인 인간의 자유가 어떠한 내용의 것인가를 말해준다. 그것은 인간성을 인간이라 하고 손금을 손이라고 하는 세계가 아닌, 인간성에서 인간이 해방되고 손금에서 손이 해방된 세계에서의 인간자유이다. 그러나 그 세계는 인간성을 인간이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인 것이다. 또한 이 작가는 진정한 본래적인 인간을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기존의 신에 항거하는 동시에 원죄의식을 제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그는 「요한시집」에서 보인 실존적 자각 가능성을 계승하여 「비인탄생」, 「역성서설」을 통하여 반과학주의의 초월적 주체를 발견해 낸다. 그의 소설은 실존주의를 동양의 도가사상과 접목시키면서 실존적 고향을 깊이 있게 탐구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근친상간과 사생아의 모티프로 연결되는 「원형

의 전설]에서는 중간자, 존재와 본질의 문제, 물화현상, 공무화 등의 실존주의적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철학용어의 문학적 수용이라는 작가의 성숙을 발견하게 된다. 전후의식과 관련한 인간탐구는 전후의 사회적 어두움과 불안, 허무의 인식을 거쳐 부조리의 인식 그리고 실존의 문학적 탐색으로 나아감으로써 인간존재의 본질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전후의 허무와 절망에 대응하는 점은 50년대 소설의 주요한 의의의 하나이다.

실존주의 사상에서 결여된 존재의 지향점은 장용학에게 있어 <4차원의 세계>, <신화시대>, <청동기시대>, <천동시대>로 나타난다. 이것은 일제의 제도와 구속이 없는 '무지개'와 '푸른하늘'이 공존하는 이상향의 세계이다. 작가는 전후시기에 이데올로기의 한계성으로 대두되는 창작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실존주의 소설의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직된 철학이론을 소설에 적용할 경우, 오히려 작가가 지향하는 주제의식을 축소시키고 빈약하게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허무와 불안이 인간존재 양식으로 나타난 손창섭의 경우, 그의 소설은 '수인(囚人)의 미학'에 머무르지 않고 정신적 가치와 권위의 몰락, 인간애·도덕성의 회복 및 절망으로부터의 구원의지를 보임으로써 실존주의적 인간 추구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불안·허무의 존재의식에서 나아가 세계의 부조리에 대항하는 의식은 부조리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에 의해 소설화되었는데 그는 전쟁과 전후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면서 부조리한 세계와 그에 대한 탐색을 추구하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1950년대 한국문예비평 자료집(한일문화사, 1990)
한국소설문학대계 29, 30, (동아출판사, 1995)

2. 단행본

고 은, 『1950년대』, 민음사, 1973.
구인환, 『소설론』, 삼지원, 1996.
구인환 외, 『한국전후문학연구』, 삼지원, 1995.
김상선, 『신세대 작가론』, 일신사, 1964.
김성기 편,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문병호, 『아도르노의 사회이론과 예술이론』, 문학과지성사, 1993.
문학사와 비평연구회, 『195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3.
박동규, 『한국소설의 성격연구』, 문학세계사, 1981.
_____, 『전후한국소설연구』, 서울대출판부, 1996.
백낙청 편,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창작과비평사, 1984.
서종택·정덕준 편, 『한국현대소설연구』, 새문사, 1990.
송하춘·이남호 편, 『1950년대의 소설가들』, 나남, 1994.
신오현, 『자아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1987.
유종호, 『비순수의 선언』, 신구문화사, 1967.
유종호 편, 『한국문제평론23인선』, 한진, 1979.
이기상, 『하이데거의 실존과 언어』, 문예출판사, 1991.
이어령 편, 『전후문학의 새물결』, 신구문화사, 1963.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민음사, 1991.
임현영, 『한국현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8.
조가경, 『실존철학』, 박영사, 1987.
조건상 편, 『한국전후문학연구』, 성대출판부, 1994.
진덕규 외,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한국문학연구회, 『1950년대 남북한 문학』, 평민사, 1991.
한국현대문학연구회, 『한국의 전후문학』, 태학사, 1991.
한양어문학회, 『1950년대 한국문학연구』, 보고서, 1997.

3. 논문 및 비평

구인환 외, 『한국문학과 실존사상』, 『현대문학』, 1990.5.

- 김교선, 「장용학의 소설연구」, 『전북대국어문학』 18호, 1975.
- 김봉구 역, 「키에르케고오르와 카프카」, 『사상계』, 1995.11.
- 김상일, 「손창섭 또는 비정의 신화」, 『현대문학』, 1961.7.
- 김승현, 「장용학론」, 『현대문학』, 1970.5.
- 김영화, 「손창섭론」, 『월간문학』, 1978.4.
- 김용직, 「생 또는 존재방식의 탐구」, 『한국문학사』, 한국예술원, 1992.
- 김태환, 「모더니즘과 소설시점의 이론」, 서울대박사논문, 1996.
- 김한영, 「전후한국소설의 특징」, 서울대사대논문, 1972.
- 박동규, 「전후한국소설연구」, 『문화비평』, 1969. 가을호.
- 백승태, 「전후작가의 문제의식」, 『세대』, 1966.2.
- 백 철 외, 「50년대 문학을 말한다」, 『자유문학』, 1959.12.
- , 「전후 15년의 한국소설」, 『한국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1963.
- , 「한국문단 10년」, 『사상계』, 1960.2.
- 송기숙, 「창작과정을 통해 본 손창섭」, 『현대문학』, 1964.9.
- 엄해영, 「한국 전후세대소설 연구」, 세종대박사논문, 1992.
- 우남득, 「실존주의식을 통해 본 1950년대 전후소설론」, 『이대대학원연구논집』, 1989.
- 유종호, 「도상의 문학」, 『현대한국문학전집7』, 신구문화사, 1968.
- , 「모멸과 연민-손창섭론」, 『현대한국문학전집3』, 신구문화사, 1965.
- 유학영, 「1950년대 한국소설 연구」, 성균관대박사논문, 1987.
- 윤병로, 「혈서의 의미」, 『한국소설의 문제작』, 일념, 1985.
- 이강현, 「손창섭소설 연구」, 세종대박사논문, 1994.
- 이은자, 「195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상 연구」, 숙대박사논문, 1994.
- 이기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전쟁체험 연구」, 인하대박사논문, 1989.
- 이봉래, 「신세대론-작가를 중심으로 한 시론」, 『문학예술』, 1956.4.
- 이상원, 「1950년대 한국전후소설 연구」, 부산대박사논문, 1993.
- 이선영, 「아웃사이더의 반항」, 『현대문학』, 1966.12.
- 이어령, 「문제성을 찾아서」, 『한국전후문제작품집』, 신구문화사, 1960.
- 이용남, 「장용학론」, 『동서한국문학전집7』, 동서문화사, 1987.
- 이 환, 「실존주의 문학의 철학적 기반」, 『문학예술』, 1956.1.
- , 「휴-마니즘과 실존주의」, 『문학예술』, 1956.7.
- 전기철, 「한국전후문예비평의 전개양상에 대한 고찰」, 서울대박사논문, 1992.
- 전영태, 「4차원세계의 실상과 허상」, 『한국소설의 문제작』, 일념, 1985.
- 정창범, 「선우 휘 소설에 대하여」, 『전통한국문학대계8』, 어문각, 1987.
- , 「송창섭론」, 『현대작가론』, 형설출판사, 1987.
- 조연현, 「병자의 노래」, 『현대문학』, 1955.4.

- 조 향, 「20세기 문예사조」, 『사상』, 1952.12.
 최상윤, 「한국 자의식소설 연구」, 세종대박사논문, 1989.
 한수영, 「1950년대 한국문예비평론 연구」, 연세대학교, 1995.

4. 국외 논저

- Lunn, E., 김병익 역, 『마르크시즘과 모더니즘』, 문학과지성사, 1986.
 Manser, A., Existentialism, History of Ideas, Mcmillan, 1987.
 Marcuse, H., 김인환 역, 『에로스과 문명』, 나남, 1989.
 May., R., 백상창 역,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문예출판사, 1992.
 Müller, M., 박찬국 역, 『실존철학과 형이상학의 위기』, 서광사, 1988.
 Novack, G., Existentialism vs. Maxism, 김영숙 역, 『실존과 혁명』, 한울, 1983.
 Poggioli, R., 박상진 역, 『아방가르드 예술론』, 문예출판사, 1996.
 Sartre, J. P., 방곤 역,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문예출판사, 1985.
 _____, 손우성 역, 『존재와 무 I, II』, 삼성출판사, 1977.
 _____, L'Existentialisme est une Humanisme, Nagel, 1966.
 _____, Q'u est ce que la Litterture?, Gallimard, 1948.
 Schaff, A., 박성수 역, 『마르크스나 싸르트르나?』, 인간사, 1987.
 Schramke, J., 원당희·박병화 역, 『현대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1995.
 Shklovsky, V., "Art as Technique", *Russian Formalist Criticism : Four Essays*, trans. and ed., Lee T. Lemon and Marion J. Reis, Lincoln, Neb., 1965.
 Smith, S., *The Origins of Modernism*, Harvester Wheat sheaf, 1994.
 Stevenson, R., *Modernist Fiction*, Kentucky Univ. Press, 1992.
 Wellmer, A., 이주동·안성찬 역,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변증법』, 녹진, 1990.
 Wilde, J., 안병욱 편, 『실존주의 철학』, 탐구당, 1957.
 Williams, R., ed. by Tony Pinkey, *The Politics of Modernism*, Verso, 1989.
 Zima, P., 허창운·김태환 역, 『이데올로기와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6.
 Zimmer, F., 이기상 역, 『실존철학』, 서광사, 1988.
 Zuidervaart, L., *Adorno's Aesthetic Theory*, The MIT Press, 1991.